

■ 코로나19가 가져 온 휴일 풍경 / 완전한 봄 날씨 보였지만...

“집 밖은 위험”... 도심 곳곳 ‘썰렁’

영화관·식당·커피숍 ‘적막’... 일부 상가는 문닫아 길거리 ‘한산’... 아파트단지·주택가 주차공간 만차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이달초부터 이동과 사람들 간 접촉을 자제하는 ‘사회적 거리 두기 운동’이 시작되면서 제주 도심 곳곳은 휴일인 데도 한산한 모습을 보였다.

8일 제주지역은 낮 최고기온이 14.8℃까지 오르며 완전한 봄날씨를 나타냈지만 주요 상권과 영화관, 대형마트는 평소와 달리 인파가 크게 줄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 방침에 따라 시민들이 외출을 삼가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시 노형동 이마트 주차장은 평일보다도 차량이 적은 모습이었다. 이마트 주차장은 3개 층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3층 주차장에는 주차 공간의 약 80%, 4층 주차장에는 약 40%만 차량이 들어차 있고, 옥상 야외 주차장에는 차량 3대만 덩그러니 세워져 있었다

마트를 찾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너나 할 것 없이 마스크가 씌워져 있다. 평소 주말이면 가족과 연인들로 붐비던 영화관도 마찬가지다. 지하 1층 주차장 중 절반에만 차량이 세워져 있고, 지하 2층 주차장은 텅텅 비었다. 영화표를 사려고 길게 늘어선 사람들의 행렬도 자취를 감췄다.

반면 제주시 노형동의 한 아파트단지 주차장에는 빈 공간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차량으로 가득 찼다. 대부분은 집 밖으로 나오는 것을 극도로 꺼리는 분위기다.

강모 (39·제주시 노형동)씨는 “최근 2주 사이 주말에는 집에만 머물

고 있다”며 “아무리 답답해도 요즘 같은 분위기에 누가 가족들에게 나들이 가자고 말할 수 있겠느냐”고 전했다.

상가들이 즐비한 제주시 연동 제원사거리 일대도 한산했다. 간간히 시민들의 모습이 보였지만 인파가 크게 줄어 차분한 분위기다. 일부 잡화점과 옷가게 등은 휴일인데도 문을 걸어 잠갔고, 영업 중인 식당과 커피숍에도 사람이 없어 적막했다.

그나마 제주시 용담 해안도로에는 관광객을 중심으로 인파와 차량들이 몰리며 도심지와 대조를 이뤘지만 이마저도 예전만 못하다는 게 주변 상권의 이야기다.

실제로 제주시 용담동 해안도로 어영마을 어울마당 전망대 주차장에는 빈 자리가 심심치 않게 보였다. 평소 이 곳은 주말마다 주차장이 꽉 차 주차할 곳을 찾지 못한 차량이 도로 한 쪽을 불법 점령하는 일이 다반사였다.

한 횡집 주인은 “이렇게 날씨가 좋은 날 주말이면 몰려드는 인파로 전쟁을 치렀을 텐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면서 “체감상 절반 가까이 사람들이 줄어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관광협회에 따르면 지난 7일 제주를 찾은 내국인 관광객은 1만6015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50% 줄었다. 외국인 관광객은 감소 폭이 더 커 전년 동기에 견줘 94.6% 감소한 193명이 제주를 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민기자



일요일인데... 코로나19 여파로 시민들이 외출을 자제하는 가운데 일요일인 8일 제주시 노형동 한 아파트 주차장에 차량들이 가득 세워져 있다.

고대모기자 bigroad@ihalla.com

강희만기자

오늘부터 ‘마스크 구매 5부제’ 실시

도내 290여곳 약국서 판매
80세 이상 대리구매 가능

9일부터 제주지역 약국에서 공적 마스크 5부제가 시행된다.

9일 0시를 기해 전국 약국에서 출생연도에 따라 요일별로 공적 마스크 구매를 제한하는 5부제가 시행된다. 마스크 5부제는 이번주 약국을 시작으로 다음주부터 우체국과 농협 하나로마트로도 확대된다.

월요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1·6년인 사람, 화요일에는 2·7년인 사람, 수요일에는 3·8년인 사람, 목요일에는 4·9년인 사람, 금요일에는 5·0년인 사람이 마스크를 살 수 있다. 주말에는 모든 출생연도 사람이 구매할 수 있는데, 이 경우도 그주 평일에 마스크를 구매하지 못한 경우로 제한된다.

마스크를 사려면 본인이 직접 방

문해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 등 공인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약국에서는 중복구매 확인시스템을 통해 구매 이력을 확인해 주당 1명이 2매 넘게 사지 못하도록 한다.

단 10세 이하 어린이와 만 80세 이상 노인은 대리구매가 가능하다. 대리 구매가 가능한 대리인은 주민등록부상 동거인이다. 대리인은 자신의 신분증과 함께 (주민등록상) 동거 중인 미성년자·노인과 함께 기재된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해야 한다.

정부는 당초 장애인에 대한 대리구매만 허용하기로 했다가 마스크 5부제 시행을 하루 앞둔 8일 대리구매 대상을 넓히기로 방침을 변경했다. 마스크 5부제가 시행되기까지 우체국과 하나로마트에서는 누구나 1인당 하루 1매씩 마스크를 살 수 있다. 한편 제주지역에서 운영되는 약국은 290여곳이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도내 사회복지시설 22일까지 ‘멈춤’

어린이집 491곳도 휴원

제주특별자치도는 복지시설 내 집단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도내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2주간 잠시 멈춤’을 실시한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도와 노인요양복지시설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오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휴관·휴강 기간을 오는 22일까지 연장한 것이다.

휴관 연장 조치된 시설은 노인복지관 2개소와 경로당 448개소, 장애인주간보호시설 8개소, 장애인직업재활시설 8개소, 장애인정신재활시설 2개소, 지역아동센터 66개소, 다문화가족지원센터 2개소, 건강가정지원센터 2개소, 종합사회복지관 10개소, 지역자활센터 4개소 등이다.

또한 제주도는 감염병에 취약한 영유아 보호를 위해 도내 어린이집 491개소의 임시 휴원 기간도 오는 22일까지로 연장했다. 다만 폭력피해여성 긴급보호시설,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휴관으로 인해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부서장(시설장)이 휴관·휴강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휴관·휴강 장기화에 대비한 지원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어르신을 대상으로는 안부전화와 도시락 지원 등을, 장애인에게

는 활동 지원 등을 지원한다. 보육공백 방지를 위해서는 가족돌봄휴가제도 이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긴급보육 신청도 접수받고 있다. 실제 5일 기준 긴급보육 이용 아동은 3954명으로, 휴원 첫날보다 480명 이상 증가했다.

이 밖에도 제주도는 시설 종사자와 참여자에 대한 발열체크 등 예방 조치도 병행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집단시설의 감염을 막기 위한 행정 조치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와 관련 6일 예정된 새별오름 불놀이 행사도 취소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독자제보 750-2232



사랑으로 지은 집
사랑으로 가득한 집

부영사랑으로

“도내 유통식품 유해물질로부터 안전”

도보건환경연구원, 규격·기준 등 검사결과

제주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도내에서 유통된 식품을 대상으로 규격·기준 및 비의도적으로 혼입될 수 있는 유해물질을 검사한 결과, 대부분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8일 밝혔다.

유통식품의 유해물질 검사는 식품안전관리지침(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라 시기별·테마별 성수식품에 대한 규격·기준 검사, 부적합이 우려되는 취약분야의 유해물질을 검사함으로써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부적합 제품은 신속하게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

유통식품 검사결과, 다소비·다빈도 가공식품 347건, 건강기능식품

81건, 총 428건 중 426건(99.5%)이 적합했다. 부적합제품은 가공식품(과자류, 음료류 각 1건) 2건(0.5%)으로 부적합건급통보시스템을 통해 전국 관련부서에 통지 전파하여 유통 차단 등 행정처분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도보건환경연구원은 안전하고 건강한 소비자의 식생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유통식품 중 유해물질 신속 검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고대모기자 bigroad@ihalla.com

“비대면 방식 제도 도입하라”

전국집배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는 6일 논평을 통해 “코로나19 확산 사태 위기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행정 현장은 여전히 낡은 관행에 의존하고 있어 집배 노동자와 시민들에게 큰 위험을 안겨주고 있다”며 “우체국 집배 노동자는 코로나19 ‘슈퍼전파자’가 되길 원치 않는다. 집배 노동자의 안전과 시민 건강을 위한다면 비대면 방식의 ‘준등기’ 제도를 즉각 도입하라”고 촉구했다.

김현석기자

THE FIRST &
THE BEST

사랑스러운 자녀의 예술교육을 위해 아직도 육지로 나가시나요?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 부담스러우시죠?

4월 1일 개강
3월 중
신입생 모집



“꿈을 변화시키는, 예술가를 키우는
예술중점 대안학교 예주랑”

제주시 봉개동에 새롭게 시작되는
"예주랑" 예술 학교가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유럽 및 미국의 경험 많은 교수님들이
직접 제주에서 수업을 해주실 것입니다.
저희 예주랑이 자녀들의 예술교육을 책임지겠습니다.

문의 : 010.9110.2205

주 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봉개동 847-10 예주랑
블로그 : blog.naver.com/yejurangjeu